

## 두 번째 시선, <이우환> 공간과 관계하는 예술

May 2023 | 김소연 에디터

Page 1 of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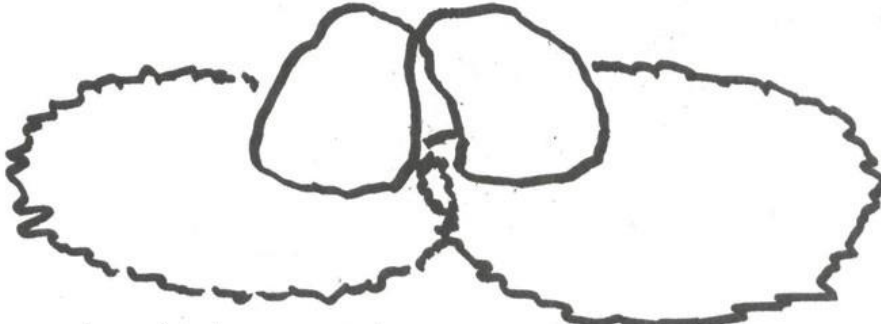
LEE UFAN

### 두 번째 시선, <이우환> 공간과 관계하는 예술

예술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재구성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말하는 이우환 작가, 외부와의 대화를 야기하는 그의 작품은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된다.

에디터 김소연

Relatum  
- The Ki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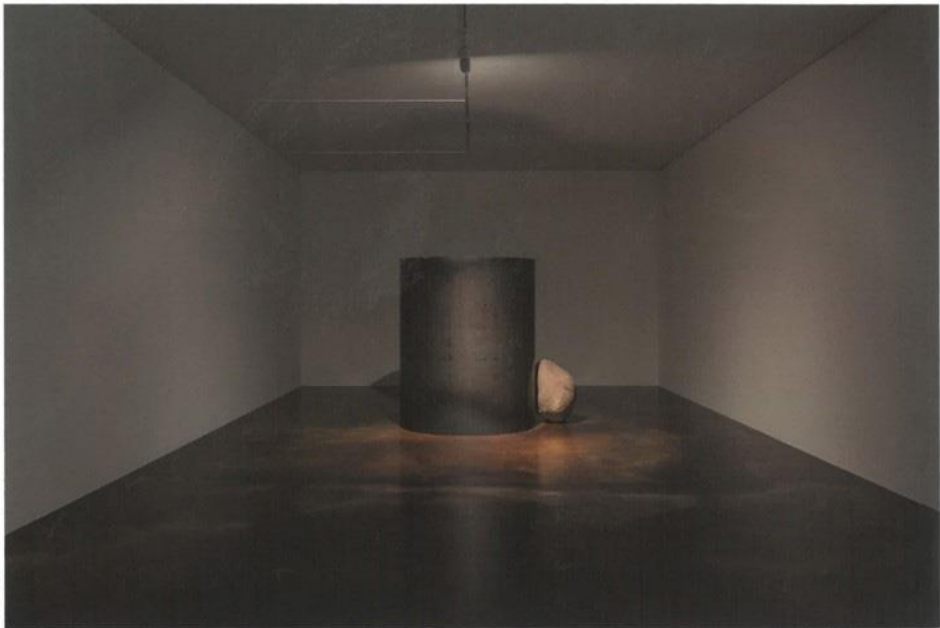
Natural stone 2 pieces, 100x70cm = 2  
steel chain 2 pieces, 400x1cm = 2  
(3<sup>th</sup>)

- 1 이우환은 이번 전시에 새로운 신작 '관계함 - 더 키스'와 작품 드로잉을 함께 공개했다. Drawing for Relatum - The Kiss, 2023, Natural stone and steel chain Natural stone: 100x70cm (2 pieces), Steel chain, 400x2cm (2 pieces)
- 2 '관계함 - 더 사운드 실린더'는 강철로 만든 속이 텅 빈 목직인 원통과 그에 기대어 놓인 돌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물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인공물과 자연석의 개별적인 물성 그대로를 공간에 병치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가 발생시키는 파장을 관조하게끔 한다.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 현상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우환은 줄곧 동아시아와 유럽 사상의 연결을 추구했고, 실제 동서 문화를 오가며 의식적, 구조적으로 상호 참조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1960년대 후반의 전위적 미술 운동인 모노하를 주도하며 이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 물질 그 자체를 예술 언어로 활용하고자 한 모노하 운동은 1970년대까지 일본 미술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이론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우환이 화가이자 조각가, 미술 이론가이자 비평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미술 흐름이나 언어를 지지하는 대신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위, 정신과 물질, 작관과 논리 등 이항 대립의 경계를 틈새를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편성이라는 하나의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현실과 맞물리는 현상의 파편으로서의 작업을 보여준 뿐 아니라 타자 또는 세계와의 교류에 열려 있는 파편으로서의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갤러리는 국내에서 12년 만에 맞이하는 이우환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1관의 2개 공간과 2관 2층 그리고 정원에 걸쳐 이우환의 1980년대 작품부터 근작까지 조각 6점과 드로잉 4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의 주 무대를 장악하는 조각들은 그가 1956년에 일본으로 이주해 전위적인 미술 운동인 모노하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1968년에 처음 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꾸준히 작업을 이어온 연작 '관계항'의 연장선에 있다. 그중 '관계항 - 더 키스'는 이번엔 새로 공개하는 신작으로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의인화된 은유를 보여주는데, 부제인 키스로 사람을 암시하는 두 개의 돌이 조우해 접점을 만들고 돌을 둘러싼 두 개의 쇠사슬 또한 포개지고 교차하면서 교집합의 양상을 만들어낸다. 아울러 '다이어로그(Dialog)'라는 제목의 드로잉 4점을 함께 선보이는데, 그는 드로잉의 특성을 이용해 극도로 제한된 표현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결국 드로잉, 칠판, 하나의 선 모두가 세계와의 열린 대화로 초월하는 파편임을 역설한다.

©Uffizi, Lin / ADAGP, Paris - SACK, Seoul, 2023



"현시대가 신이나 '인간'이라는 명령 그리고 정보라는 명령한테  
 흘러서 맥을 쓸 수 없다. 이 명령이 전 세계, 어쩌면 우주론까지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신체일 수 없고, 손에 닿지도 않고,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실체나 외부가 없는 닫힌 세계다. 이제  
 우리는 명령된 '인간'을 넘어서 '개체로서의 나와 외부와의 관계적인  
 존재로 재생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작품은  
 자극이 단순하지만, 독특한 신체성을 띠고 있으며, 대상 그 자체도  
 아니고 정보 그 자체도 아닌, 이쪽과 저쪽이 보이게끔 열린 문, 즉  
 매개항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타자가,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장소가  
 작품이고 이것은 새로운 리얼리티의 제시다." - 이우환

"그는 자신의 모든 조각을 '관계항'이라 제목 짓고 여기에 종종  
 부제를 붙이는데, 이때 부제는 가능한 연상을 도출한 후 확고한 해석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규정지을 수 있는 관계 대신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를 의미하는 관계항을 제목으로 선택한 데에는 작품의 개별  
 요소들이 끊임없이 맥락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관계에 놓이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다. 자연을 상징하는 돌 그리고  
 산업 사회를 대표하는 강철판 등 작업의 요소들과 함께 하나의  
 관계항으로서 작품 공간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관람객은 두 사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침묵 중에 진행되는 대화를  
 명상하듯 관찰하며 자아와 타자의 공생을 생각하게 된다."

- 국제갤러리





르코르뷔지에의 건축물에서 처음 공개한 바 있는 '관계항 - 드웰링(Dwelling) (A)', 작가는 생명체의 집 같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Bulhan Lee / ADUUP, Paris - SACK, Seoul, 2023

3

"돌은 시간의 덩어리다. 지구보다 오래된 것이다. 돌에서 추출된 것이 철판이다. 그러니까 돌과 철판은 서로 형제 관계인 것이다. 돌과 철판의 만남, 문명과 자연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내 작품의 발상이다." - 이우환



사진 Claire Barn

4

- 1 '다이어로그'라는 제목의 드로잉들은 정신과 호흡을 극도로 통제하고 기다려야만 찍어 낼 수 있는 커다란 점과 자연물을 묘사한 듯한 제한된 수의 선으로 이루어졌다.
- 2 의인화된 은유를 담아 조우를 나타낸 조각품 '관계항 - 더 키스'.
- 3 '관계항 - 어 코너'는 곡선형의 철판을 중심으로 독특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채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 3 1936년에 출생한 이우환은 일본의 예술 운동인 모노하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 이우환

📍 서울시 중로구 삼청로 54 국제갤러리  
📅 4월 4일-5월 28일  
🌐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